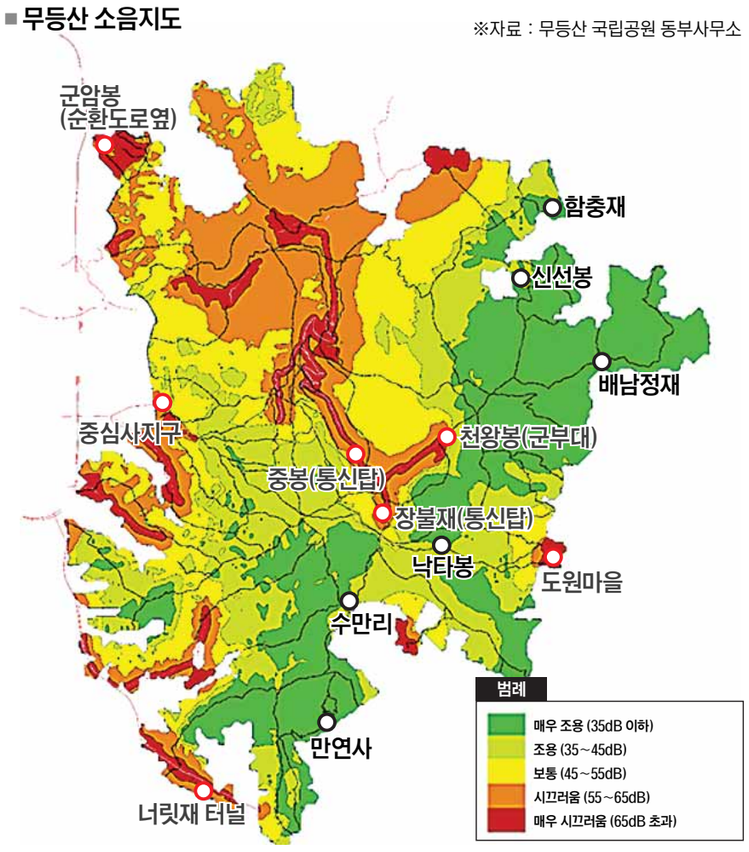
군부대·방송통신탑이 무등산 소음 주범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소음지도 공개

시설물 유지 보수 차량 통행·기계음·탐방객 방문 등 원인
야생동물 소통 교란 등 악영향…도원계곡·신선대 가장 조용

■ 무등산 소음지도

※자료 :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무등산국립공원 고지대 소음은 정상부 군부대, 장불재와 중봉에 위치한 방송탑, 통신탑 등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대 소음의 원인은 이들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차량 통행과 시설물 기계음, 탐방객으로 확인됐으며, 야생동물의 의사소통 교란, 수면 방해, 스트레스 유발 등 무등산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무등산국립공원 소음 맵핑 연구'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시범 제작한 무등산 소음지도를 8일 공개했다.

연구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 소음지역 8곳과 자연지역 6곳을 대표지점으로 선정한 뒤 주간(오전 6시~밤 10시)·야간(밤 10시~오전 6시)을 구분해 현장 조사를 거쳐 소음원의 소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대표지점에서 측정한 평균 소음도를 산출, 지도에 옮겨 소음지도를 만들었다.

소음 분석 결과 무등산에서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 구간과 마을이 분포한 북부지역에서 소음이 높게 측정됐다.

무등산 동부사무소 관계자는 "군부대, 방송사와 이동통신사 시설탑이 위치한 고지대 소음은 시설 자체가 발생한 소음보다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왕래하는 차량이 더 큰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조용한 곳은 도원계곡, 신선대 지역으로 조사됐다.

주간 소음은 화암마을에서 배재마을까지 공원 내부도로 78.49데시벨(dB), 너릿재 터널 입구부 공원 외곽도로 71.98dB, 원효분소에서 장불재에 이르는 임도 70.48dB, 평촌마을과 용연마을 등이 들어선 공원마을 지역 67.25dB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음지역으로 분류된 이곳의 주간 소음은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공사장 수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주간 소음 기준치는 65dB이다.

자연 지역으로 분류된 만연사 오감만족길 구간의 주간 소음은 64.53dB로 소음지역에 비할 만큼 소리가 컸다. 야간에는 공원 내부도로(두암동~4수원지 75.13dB)·증심사와 원효사 부근 집단시설지구(64.02dB)·공원 외곽도로(55.79dB) 구간의 소음이 컸다.

특히 야간의 경우 공원 외곽도로와 공원 내 마을을 제외한 지역은 고요한 상태를 유지했으나, 군부대와 방송통신탑들이 자리 잡은 무등산 고지대는 소음이 계속해서 발생해 낮보다 넓게 확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선봉이 주간 40.06dB, 야간 35.78dB, 낙타봉이 주간 48.47dB, 야간 33.47dB로 측정됐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관계자는 "무등산의 경우 도로가 지나고 도시와 인접한 데다 고지대에 군부대나 통신시설 등이 자리 잡아 소음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소음 측정과 지도 제작 등 연구는 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과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으며, 올해 시범사업 종료 후 담양·화순지역 공원 구간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현재 수정·보완 단계를 거치고 있는 무등산 소음 지도는 최종 완성되면 일반에 공개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7:01 해짐 17:31 달뜸 14:08 달짐 00:40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1/11	보 성	맑음	1/11
목 포	맑음	3/11	순 천	맑음	2/12
여 수	맑음	3/12	영 광	맑음	0/10
나 주	맑음	0/11	진 도	맑음	4/11
완 도	맑음	4/11	전 주	맑음	-1/9
구 례	맑음	-2/11	군 산	맑음	0/9
강 진	맑음	2/12	남 원	맑음	-3/9
해 남	맑음	2/11	흑산도	맑음	7/9
장 성	맑음	0/11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	북~북동	1.0~2.0
	먼바다	북서~북	2.0~4.0	북~북동	2.0~3.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북동	1.0~1.5
	먼바다(동)	북서~북	2.0~4.0	북~북동	1.5~3.0
	먼바다(서)	북서~북	2.0~4.0	북~북동	1.5~3.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1:53	08:33
	14:01	21:16
여수	09:46	04:02
	23:16	16:47

◇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자외선	보통

◇ 주간 날씨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4/13	7/16	5/18	8/18	5/18	6/18	7/17

담양·곡성·구례·화순 한파주의보

전남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를 기해 담양, 곡성, 구례, 화순 등 4개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신안 흑산도와 홍도, 여수 거문도와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9일 아침 최저기온이 곡성과 구례는 영하 2도, 담양과 화순은 영하 1도, 광주는 영상 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전남 대부분지역의 낮 최고기온도 10~12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9일 정점에 달했다가 11일부터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교대 총장 공석 장기화 조짐

임용위 활동 중단…재추천 요청 반대 요구 대학이 거부 논란

광주교육대 총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총장 후보자 선정 업무를 맡고 있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후속 논의가 중단되면서다.

특히 교육부의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요청' 과 관련, 총추위가 교육부의 부당한 조치에 거부할 것을 대학측에 공식 요구했지만 대학이 거부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후속 절차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광주교대에 따르면 제 7대 총장 후보자 선정 업무를 맡았던 총장임용추천위원회 A 위원장이 내년 정년을 앞두고 사퇴하면서 총추위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총추위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을 위한 모든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총장 공석 사태 장기화가 우려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까지 감안하면 총장 선출을 둘러싼 민감한 문제를 총괄할 후속 위원장 선출도 쉽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총추위는 특히 20명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의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요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추위가 총장 임기 만료를 불과 나흘 앞두고 '퇴짜'를 놓은 데 따른 사유도 밝히지 않은 부당함을 반영, 입장을 내놓았는데 대학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광주교대측은 이와관련,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총추위에 관련 답변을 보냈다"면서 "다른 내용은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특성화고 무상급식 '뜨거운 감자'

광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형평성 문제 내년 예산심사 쟁점

광주시교육청이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이 내년도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장,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열악한 재정 형편에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도 제 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일반고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민간참여 방과후 컴퓨터교실의 부실한 관리·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김옥자 시의원(광산3)은 특성화고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 "하루에 두 끼 먹는 일반계고 대신, 한끼 먹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만 예산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단편적 조치"라며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급한 사업을 제쳐놓고 추진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청은 내년부터 광주 특성화고 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신규 예산 69억원을 반영할 것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문태환(광산2) 의원은 민간참여 방과후 컴퓨터교실과 관련, "계약기간 중 '수강료 인상 금지'라고 명시했음에도 업체가 수강료를 인상했는데 학교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학교의 부실한 관리를 꼬집었다.

문 의원은 강사가 약속보다 적게 운영되는데도 인건비를 그대로 챙기는가 하면, 계약과 다른 경력의 강사를 배치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수능 전자식 시계·샤프펜 반입 불가

광주교육청 부정행위 예방책 발표

지난해 전국에서 수능시험을 치렀던 189명의 학생이 휴대폰이나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등의 이유로 수능시험 무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7일 시행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하는 등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시계는 통신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들고 갈 수 있다. 지난해는 잔여시간 표시기능을 갖춘 전자식 시계는 반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금지된다.

금지 시계를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시계에 대한 점검 절차도 강화된다. 응시생은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감독관은 시계 뒷면까지 점검해 휴대가 가능한 시계인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외 시험 시간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보청기 DAEHAN HEARING AID www.maxo.co.kr

◈장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